깨어나보니 기억을 잃은 상태. 자신을 여주의 약혼자라고 지칭하는 이가 수발을 들어준다. 여주는 시골 마을 레테에서 머물며 약혼자와 함께 천천히 자신의 기억을 찾아나가는 삶을 살고 있었다. 깨어나길 3년째,